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EC,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또 연기

EU집행위원회(EC)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또 유예했다고 보도됨. EC는 지난달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인 Statement of Objections, SO)를 통보한 바 있으며, 가스선에 대한 경쟁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번째로 심사를 연기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LNG newbuilding orders poised for rebound after slow first half of the year

올해 상반기 전세계 LNG선 발주량은 8척을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발주량이 상반기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상반기 투기적 발주 비중이 높았던 데 반해 하반기에는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발주가 주를 이루며 23척의 LNG선이 LNG프로젝트 화물 운반 목적으로 발주될 전망으로 보도됨. (TradeWinds)

## Offers close this month on a regasification project originally floated five years ago

인도의 Mumbai Port Trust(MPT)가 며칠 내로 FSRU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됨. COVID-19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지만 기한은 7월 24일로 정해졌다고 보도됨. 몇년 간 표류했던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LNG선을 개조한 FSRU를 채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해운·조선업 포함?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그동안 예외 업종이었던 해운·조선업을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됨. 위원회는 2030년까지 모든 선박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0%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유휴 '컨'선 200만TEU 이하로 감소

유휴 컨테이너선대가 4개월 만에 200만TEU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보도됨. 컨테이너선 시장이 COVID-19로 인한 하강 사이클의 바닥을 탈피하고 있다고 보도됨. Alphaliner 집계에 따르면, 7월 6일 기준 유휴 컨테이너선은 375척, 1,847,871TEU(-471,508TEU, MoM)로 집계됐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Daehan tipped to win TEN's shuttle tanker contract

대한조선이 그리스의 TEN(Tsakos Energy Navigation)으로부터 수에즈막스 탱커 1+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158,000DWT급 DP2s, 셔틀탱커이며 척 당 선가는 7,400~7,800만달러 사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